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86 2021. 11. 2 Tue

발행인 김상식 주간 임태균 간사 조선희 편집장 김가운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351, 8276 http://www.sungkyul.edu



3 보도
[CTL] 2021학년도
학습자 중심 수업
우수 교원 시상식



4 대학
대학 글로벌 인재로
가는 길,
교환학생의 모든 것



7 사회
방역과 차별,
그 사이에서



13 교양
말의 소리와
국문법을 노래한
10월의 주시경

성결 HOT 기사판

본교, 성결교회 역사자료 기증식 가져



지난 10월 5일(화) 재림관 8층 총장실에서 성결교회 역사자료 기증식이 진행됐다. 기증된 자료는 『부표관주 신약전서』와 『新約聖書典林』 총 2권이다.

이날 기증 받은 『부표관주 신약전서』는 1910년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선교회 소속 C.E 카우만 선교사가 발행한 것으로 당시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신약성경에 부표와 관주를 붙여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글 성경 최초 2도 활자체 인쇄 ▲한글 성경 최초 부표와 관주 사용 ▲한국 성결교회 전용 성경이라는 점에서 더 큰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날 기증 받은 또 다른 자료인 『新約聖書典林』은 1912년 동양서원에서 발간된 것으로 ▲지명편 ▲인명편 ▲잡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약 성경 내용의 지명이나 인명을 가나다 순의 사전식으로 배열하고 있다. 『新約聖書典林』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사전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결교회의 임흥근 목사는 “이번에 기증된 『부표관주 신약전서』는 성결교회가 다른 교단에 의존하지 않고 성결교회만의 성경책을 직접 만들고 발행한 것으로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표관주 신약전서』는 평신도들이 재미있고, 편리하게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발행했기 때문에 교단의 정체성 중 하나인 성경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료다”라며 기증된 자료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기증식을 통해 받은 『부표관주 신약전서』와 『新約聖書典林』은 10월 5일(화)부터 12월 31일(금)까지 본교 학술정보관 1층 U라운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글 - 김채린 수습기자 cofs1787@sungkyul.ac.kr

사진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참조] 베리타스알파

가을맞이 성결 동림픽

지난 10월 13일(수) 동아리 연합회에서 가을을 맞이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온라인 E-Sports 행사 '2021 성결 동림픽'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선 동아리원과 일반 학우 모두 참여가 가능했으며, E-Sport 종목에는 ▲축구(피파 온라인) ▲사격(서든어택) ▲카레이싱(카트라이더) ▲수구(크레이지 아케이드) ▲육상(테일즈런너)가 포함됐다. 상품은 나이키 후드티,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다. 참여 신청자 중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진자가 특정 미션을 성공하면 상품이 제공되는 미니 이벤트 '행운의 여보세요' 또한 학우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도 각종 미니 게임과 시상식, 폐막식을 진행하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동아리 연합회 공유희(미소 21) 학우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행사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림픽 행사에 재밌게 참여해주 감사하다”며 동아리원과 학우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글 - 정예슬 기자 jys02007@sungkyul.ac.kr

사진 - 동아리 연합회

미리보기

위드 코로나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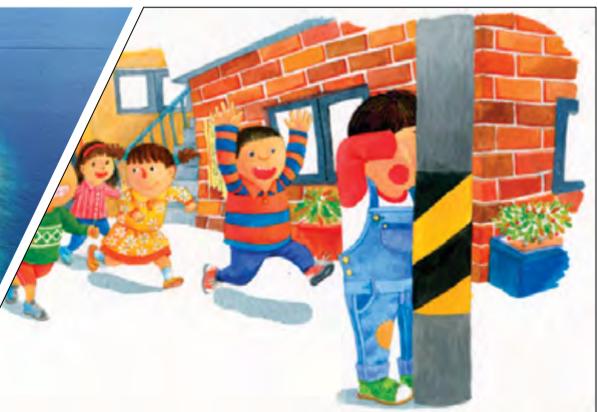
<6면에 계속>

점점 빨라지는 해양 변화, 그 위험을 알리다



<8면에 계속>

놀이 옛보기



<12면에 계속>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운영기관 6년 연속 선정 쾌거

본교 산학협력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 사업인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경기지역 8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운영단체로 6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여기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약 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 지원사업이다. 본 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및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해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은 도모하고, 경기지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종합적인 면에서 높은 평을 받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5년간(2017~2021)의 지속적인 사업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광활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및 교육현장에서의 선제적 민원해결 등 맞춤형 교육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 교육현장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이에 이원현 교수는 "본교 산학협력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새로운 미래교육에 대비하고자 선도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등에 초점을 두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올해 12월까지 운영학교 모집 선정을 진행하여 경기도 각 운영학교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선발된 예술강사의 배치가 이뤄지게 된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동아시아물류학부 (글로벌물류학부) 무역·물류 전문자격증 34명 취득 성과 창출

본교 동아시아물류학부(글로벌물류학부)는 2021년 하반기 전문 자격증 시험 중 3개 분야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에 총 34명이 합격하여 명실상부한 무역 물류 분야 전문가 양성의 요람임이 입증됐다.

본 성과는 그간 동아시아물류학부의 모든 전공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선호와 졸업 후 진로 모색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준별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한 결과이다. 더불어 우수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물류인재상 운영 ▲해외인턴십 진행 ▲해수부·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학생과 교수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거둔 값진 성과이다.

이에 학부장인 정태원 교수는 "이번 성과에 머물지 않고 2022년 글로벌물류학부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학부가 명품 학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임 교수진, 산학 교수진, 20여 개 산학협력 기업 및 소속 학생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과 양성·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물류학부는 2021년 하반기 중, 또 하나의 전문 자격인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무역영어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및 관세통관 분야 관세사 취득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참조] - 동아시아물류학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신슬기, 골드칼라공학도상 수상

본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재학생 신슬기 학우가 '2021 한국공학교육학회 포상사업'에서 골드칼라공학도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학교육학회 포상사업은 우수한 공학교육 연구개발 성과로 국가과학기술진흥에 공헌한 공학교육인을 발굴 및 포상하여 공학교육 관계자의 사기진작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되는 학회 주관 사업이다.



위 학우는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추천과 한국공학교육학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국내 공학교육 발전에 모범이 되는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어 골드칼라공학도상을 받았다. 이에 김은서(미소 19) 학우는 "같은 공학인으로서 공학 교육 발전에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공학에 대한 지원과 학우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본교 공학 교육 성장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공학 교육의 발전과 재학생들의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공과대학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이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한국공학교육협회

성 결 만 평

그림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CTL] 2021학년도 학습자 중심 수업 우수 교원 시상식

지난 9월 17일(금) 오후 4시 재림관 8층 총장실에서 2021-1학기 학습자 중심 수업(플립드러닝, 문제해결형, 전공 맞춤형 수업) 우수 교원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8월에 진행된 학습자 중심 수업 성과공유회(우수 수업 사례 발표)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의 격려가 이뤄졌다.

시상식에서는 플립드러닝과 문제해결형 수업 두 개 부문으로, 총 5명의 교원이 선정됐다. 플립드러닝 수업에서는 ▲박은혜(기독교교육상담학과, 기독교 교육개론 운영) ▲임태균(동아시아물류학부, 일본대중문화론 운영) 교수가, 문제해결형 수업에서는 ▲김정미(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미디어소프트웨어종합설계2 운영) ▲신창식(음악학부, 연



주:capstone design1 운영) ▲조유진(유아교육과, 유아사회교육 운영) 교수가 수상을 받았다.

이에 행사를 주관한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는 “오늘날 학습자 중심 수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본교에서도 이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

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혁신적 수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본교 학습자 중심 수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본교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 출신 동문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 선정

제 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본교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 출신 동문들의 작품이 뉴 커런츠 부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김세인(연영 11) 감독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와 황경현(연영 10) 촬영감독의 <세이레>는 해당 부문에 선정된 총 11편의 작품 중 단 2편의 한국 장편영화로 선정돼 본교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의 높은 수준을 널리 알렸다. 여기서 뉴 커런츠 부문은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이끌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경쟁 부문으로 최우수작 두 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이다. 한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엄마 수경과 딸 이정과의 상반된 성격으로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이레>는 아기 아빠가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 아기가 아프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포 영화이다. 영화에 관심이 많은 학우들은 두 작품을 꼭 관람해보길 바란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부산국제영화제

[CTL] 2021-1 Sungkyul Creative Challenge (창의문제해결 프로젝트)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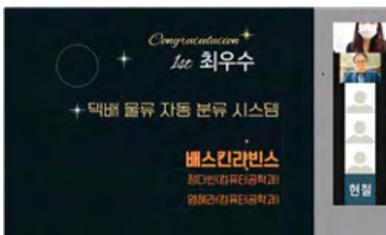
지난 9월 30일(목) 오후 3시 재림관 8층 총장실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한 2021-1 Sungkyul Creative Challenge(창의문제해결 프로젝트) 시상식이 열렸다. 17일(금)에 진행된 2021-1 Sungkyul Creative Challenge(창의문제해결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총장상은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택배 물류 자동 분류 시스템 제작을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수행한 정다빈(컴공 20) 학우와 염혜라(컴

공 20) 학우가 수상했다. 여기서 창의문제해결 프로젝트는 학부생(최대 5명)과 멘토 교수(전임)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단, 본인이 속한 사회에서 탐색한 자율주제를 바탕으로 전공 및 융합 영역에서 실천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는 “학생들의 학습역량 함양을 위한 심화형 학습공동체로서,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수행 활동을 하는 Sungkyul Creative Challenge(창의문제해결 프로젝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학우들의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으니 본교 교수학습지원센터(031-467-8139)를

통해 알아보길 바란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참조 - 교수학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2학기 성결대학보 기사를 소개합니다

- ▶ **편집장** 김가윤(뷰티 19) rt0120@sungkyul.ac.kr
- ▶ **정기자** 김민진(연영 17) zzzzzzzzzin@sungkyul.co.kr
오승민(영문 15) sm961215@sungkyul.ac.kr
김은서(미소 19) yuu456@sungkyul.ac.kr
문예빈(동물 19) cagi77@sungkyul.ac.kr
정우민(정통 20) jelly1110@sungkyul.ac.kr
노하은(중문 20) dmlsu7226@sungkyul.ac.kr
정예슬(동물 20) jys020907@sungkyul.ac.kr
- ▶ **수습기자** 고은성(국문 20) ges0188@sungkyul.ac.kr
박미경(동물 20) qkralrud0827@sungkyul.ac.kr
김주희(국문 19) wngml5216@sungkyul.ac.kr
김채린(사복 20) cofls787@sungkyul.ac.kr
이서연(국개협 20) tjds1596@sungkyul.ac.kr

대학생활 새내기! 20학번, 21학번 학생들을 위한 추천

2021-2학기 학습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1. 성결 튜터링

전공과목 A00이상 취득, 공모전 입상, 자격증 취득한 학생(튜터)과 그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동일 자격증 취득 목적의 학생들(튜티)이 함께 팀을 이루어 다양한 전략으로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2. 성결 스터디

학생들이 공통 학습주제(교과목, 자격증)로 팀을 형성하여 합동학습을 진행하고, 학기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비교과 프로그램

대학생활 새내기를 위한 추천 키워드

- ☑️ 코로나 시대의 지루한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선·후배, 동기**와 함께 **스터디**하고 싶은 학생!!
- ☑️ 공모전, 자격증 등 이미 취득한 **선배의 학습 꿀팁**과 함께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원하는 학생!!
- ☑️ 경험해보지 못한 **대학 생활**과 **대학 공부법**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대학생활 새내기!!**
- ☑️ 학습 성취감 및 S-point, 활동비 등 **학습활동**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학생!!
- ☑️ **20학번, 21학번**이 포함된 튜터링, 스터디 그룹은 **간식 지원!!**

* 학습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든 학년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통합역량개발 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성결 튜터링, 스터디 검색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제출 [튜터, 팀장 대표 신청] *개별 신청 가능

튜터링, 스터디 매칭 대기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팀 031)467-8139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및 매 학기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글로벌 인재로 가는 길, 교환학생의 모든 것

빠른 세계화로 많은 학생들이 제2외국어와 관련된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교환학생은 대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기회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인재로 가는 길의 중심에 서 있는 교환학생과 본교에서 시행 중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교환학생? 그게 뭔데!

교환학생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끼리 일정 기간 동안 서로 학생을 교환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교환학생은 다른 국제 교류 경험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우선 일반적인 유학과 다르게 교환학생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이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안전하다. 특히 자매결연 학교에서 들은 학점이 본래 학교에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거나 차질이 생길 일이 적다. 이렇듯 해외에서 언어도 배우고 스펙도 쌓으며 학점까지 채울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교환학생은 개인적으로 가는 유학과 어학연수와 달리 기간이 한 학기로 한정돼 있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교환학생은 적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해외 경험과 외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그래서 그게 스펙에 도움이 돼?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외활동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스펙을 쌓는다'라고 말한다. 특히 남들보다 더 가치 있고, 희소성이 있는 스펙은 취업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때, 교환학생으로 국제 교류 경험을 쌓는 것이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스펙이 될 수 있을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포털 알바몬에서 대학생 8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89%가 해외 체류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외국어 실력 향상이 43.6%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도 ▲견문의 확장 ▲자신감 강화 ▲글로벌 감각 체득 등을 이유로 꼽았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해외 기업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해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며 견문이 넓고, 글로벌한 감각이 높은 인재들을 채용하기에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과 같은 국제 교류 경험을 통한 외국어 실력 향상과 견문의 확장이 취업 시장에서 큰 스펙으로 작용되고 있다.



#본교의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본교 국제교류과에서는 재학생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마인드와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지금부터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교환학생 프로그램

본교에서는 해마다 두 번 ▲중국 ▲일본 ▲대만 세 나라에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이때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에서는 모든 수업을 현지 외국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급의 외국어 실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선발 중 서류평가와 면접 심사 외에도 외국어 능력 평가가 시행된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할 시 자매대학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2. SIA 해외 캠퍼스

SIA 해외 캠퍼스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현지의 언어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의 자매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두 번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파견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다른 것이 있다면 SIA 해외 캠퍼스는 본교의 수업료가 면제되는 대신 자매대학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3. SIA 단기연수

SIA 단기연수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단기 과정으로 해외 자매대학에서 해당 국가 어학연

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SIA 해외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에 파견이 된다. SIA 단기연수 또한 해마다 두 번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파견 학생이 선발되며, 단기과정 수업료 및 기숙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교환학생, 이래서 추천해요!

본교 국제교류과 담당자와 본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우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슬기(동물 15)학우

①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평소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는데 교환학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다녀오게 됐습니다.

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비록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국어 실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 수 있어 좋았습니다.

③ 중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향상했으며, 교환학생 경험이 스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에 가기 전에는 가벼운 인사말 정도만 가능했다면,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에는 중국인들과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향상했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 중국 관련 기업에 가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어떤 학우들에게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나요?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재학 기간 중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꼭 한번 참여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국제교류과 담당자

①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과에서는 매 학기 선발을 통해 약 20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대학으로는 미국의 위스콘신대학교, 영국의 본머스 대학교가 있으며 아시아권 대학의 경우 중국의 ▲동화대학교 ▲웨이팡대학교 ▲요녕대학교 일본의 ▲아시아대학교 ▲갓스이어자대학교 대만의 ▲가오슝국립과학기술대학교 ▲카이난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②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므로 외국어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 시 HSK나 IELTS와 같은 공인 외국어 성적을 참고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에 대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교환학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교환학생은 해외에서 공부를 함과 동시에 본교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도 쌓고 실력도 쌓으며 학점까지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교환학생을 통해 얻은 경험은 나중에 대학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④ 어떤 학우들에게 본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하시나요?

적극적인 학생이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은 해외에 가서 경험을 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안주하려는 학생보다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학생이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 시절 성적 향상과 제2외국어 준비를 위해 외국어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스펙을 쌓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개중에는 언어 실력 향상을 위한 유학이나 어학연수 같은 해외 체류를 고민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용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민을 가진 학우들에게 교환학생은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말해주고 싶다. 현지에서 문화를 체험하며 몸소 배우는 언어는 책으로만 배우는 언어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학교라는 소속 아래 안전하게 세상의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아직도 고민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본교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천해보길 바란다.

글 - 김채린 수습기자 cofil787@sungkyul.ac.kr

사진 - 티스토리, 토익스토리/[참조] 토익스토리, 본교 홈페이지

창업의 세계와 트렌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영상 이력서'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다가오며 취업 문화 역시 변화됐다. 부모님 세대에는 이력서를 한 글자씩 써 내려가거나 워드로 타이핑하는 시대였다면, 최근에는 '영상 이력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영상 이력서'가 취업 준비생으로부터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영상 이력서에 대해 알아보자.

종이를 대신한 '영상 이력서'

미국 워싱턴주의 취업 준비생 마케 나이(21)는 동영상 소셜 미디어 틱톡에 59초의 영상 이력서를 게시했다. 그는 "왜 여러분이 날 채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라며 짧은 영상 안에 자신의 성격, 학력, 사회 경험 등을 소개하고, 직접 제작한 각종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했다. 그가 올린 영상은 10일 만에 조회 수 20만 3700회를 기록했고, 약 15개의 기업에선 직접 그에게 채용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수많은 러브콜을 보내왔다. 이를 시작으로 구직 채용 과정에서 영상 이력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국내외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영상 이력서를 정식 서류로 인정하고, 영상 이력서가 많이 올라오는 동영상 소셜 미디어에 채용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종이 이력서가(이메일에 밀려 사라진) 팩스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며 "영상 이력서 확산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를 내다봤다.

#국내외 기업의 선전포고 '영상 이력서' 채용

앞서 언급한 러브콜을 기점으로 해외기업 '틱톡(Tic Tok)'은 영상으로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내놓았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회사 스파파이 ▲레스토랑 체인 치폴레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 WWE 등 약 30여 개의 기업이 틱톡 구인에 참여했다. 구직을 원하는 틱톡 사용자 이력서 영상을 제작한 뒤, #TicTokResumes 해시태그를 달아 개인 채널에 자신의 개성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본 서비스는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당장 부족한 인력을 찾을 수 있고, 미래 핵심 고객인 MZ 세대를 대상으로 회사를 홍보할 수도 있다. 틱톡은 앱 기능과 디자인을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러한 도전적 실험은 MZ 세대의 소셜 미디어를 넘어 채용 플랫폼 기능 실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으며, 미국 매체에서 틱톡은 'Z세대의 링크드 인'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원자들에게 자기소개 영상을 요구하는 기업

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LG상사는 작년 하반기 인턴십 채용 과정에서 "형식적 입사 지원서로는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이야기를 자유 형식의 동영상을 통해 풍부하게 듣겠다"며 자기소개 문항을 대폭 축소하고, 2분 이내의 영상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화생명, 로레알코리아 역시 별도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없이 자기소개 영상으로 채용 전환형 인턴을 공개했다. 유튜브 등에서 전체 공개로 설정된 지원자들의 입사 지원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채용 전문가들은 "기업으로서도 진부한 자기소개서보다 자유 형식 영상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며 영상 이력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상 이력서'에 한계는 없는가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MZ 세대 취업 준비생 1042명을 대상으로 영상 이력서 도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이력서에 어필하기 어려운 자신감, 센스 등을 표현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시각 자료와 함께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들은 '영상 제작 방법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기존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준비만으로도 벅차서'라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영상 이력서는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자신의 개성 및 특징을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미디어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영상 제작'이 큰 난관으로 다가온다. 더불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함께 영상 이력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시간에 쫓길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평가 기준의 모호성 ▲자신감 부족 ▲영상 유출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춰 취업 문화 또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지원자의 진솔한 경험과 이야기를 원하며, 많은 다수의 취업 준비생 또한 종이 이력서에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성을 영상매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영상 이력서'에 주저하고 있는 당신에게

같은 세대에 태어난 MZ 세대라고 해서 모두가 미디어 문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상 제작 문제로 시도하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영상 이력서'를 제작하기 위한 작은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상 편집 자체는 컴퓨터의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은 깨야 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도 질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무료 동영상 편집 앱 'VLLO'는 영상의 크기, 비율을 업로드 할 플랫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BGM ▲목소리 삽입 ▲자막 설정 ▲스티커 삽입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 서비스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 영상 제작 및 편집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초보자들에게도 이를 추천한다. 추가로 유튜브 '영상 18도 - 깡디의 유튜브 클래스' 혹은 '치하키 스튜디오' 채널에서 약 20분 내의 강의 영상을 시청해보길 바란다.

취업 및 인턴 채용뿐만 아니라 대학 과제 속에서도 영상 제작 및 편집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기회삼아 미디어 문화에 한 발 다가 '영상 이력서'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표현하여 미래의 생산 주체인 MZ 세대가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잡코리아, 유튜브/[참조] 조선일보, 뉴시스

다 같이 자취하자!

단기간 취득 어학 스펙으로 알려진 '토익', 그러나 무작정 진도만 많이 나간다고 높은 점수가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다. 편입 및 취업 준비생부터 입문자까지! 이번 호에서는 모두가 주목해야 할 토익의 기본 정보를 포함해 파트별 공부 비법까지 소개하고자 한다.

#토익 정보

구성	파트	파트별문항수	시간	배정		
Listening Comprehension	1	사진요사	6	100	45분	495점
	2	질의응답	25			
	3	짧은대화	39			
	4	설명문	30			
Reading Comprehension	5	단문공란 메우기(문법/어휘)	30	100	75분	495점
	6	정문 공란 메우기	16			
	7	독해	29			
Total		7Parts	200문항	120분	990점	

국경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바라보는 글로벌 시대가 찾아왔다. 미국의 최대 교육평가 기관 ETS에 의해 개발된 토익(TOEIC)은 영어가 모국어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 시험이다. 본 평가는 990점을 만점 기준으로 청취력 평가 4파트 100문항 45분, 독해력 평가 3파트 100문항 75분으로 구성돼 총 200문항에 1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듣기 평가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의 발음 및 악센트와 미국 영어에만 쓰이는 특정 어휘 및 문법을 피해 출제돼 매우 까다롭다. 응시를 위해선 약 48,000의 수수료가 요구되며, YBM/한국 TOEIC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시험 접수가 가능하다.

#파트별 공부법

청취력 평가 부분의 파트 1-4는 주로 들려주는 문장을 받아 적는 디테이션 혹은 문장을 따라 읽는 새도임을 추천하나 위 스킬들은 듣기에 익숙한 사람에게나 효과적이다. 여기서 첫째, 입문자 및 초보자라면 스크립트 해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자. 문제 풀이 전, 질문과 보기의 해석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스토리를 먼저 상상한 뒤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다. 틀린 문제가 생겼다면 영어 대본을 모두 독해하고 들리는 문장을 따라 읽는 새도임 기법을 같이 활용해도 좋다.

독해력 평가 부분의 파트 5-7의 핵심은 무조건 '어휘'다. 5-6파트는 문법과 어휘를 묻는 문제이기에 기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둘째, 파트 6은 근거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본 파트는 장문의 공란을 매우는 문제이므로 답안을 고를 시 공란의 전후 문장이 근거가 된다. 정답을 틀린다면 근거가 되는 문장의 어휘와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파트 7의 핵심은 키워드 찾기이다. 파트 7은 주로 상황이 주어지는 장문의 글로, 지문과 질문의 보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미리 찾아놓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독해력 평가 파트 5-7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휘'이기 때문에 충분한 단어 암기 후,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보아도 좋다.

#입문서 및 문제집 추천



많은 사람들이 토익을 처음 접하면 어떤 문제집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곤 한다. 먼저 입문서로는 'ETS 공식 입문서'를 추천한다. 토익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문서로 실제 성우 및 기출문제가 등장한다. 더불어 가독성이 매우 좋아 영어가 생소한 이들에게 매우 알맞은 책이다. 종합서의 경우 'ETS 공식 종합서'를 추천한다. 특히 청취력 평가의 LC 부분은 이를 추천하며, 고득점을 원한다면 '해커스 토익 종합서'를 추천한다. 위 종합서는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언급해 기출문제를 끝낸 이들에게도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000제'와 '해커스 토익 기출 보키'는 실제로 출제된 문항과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토익을 응시하려는 모든 수험생에게 필수적이다. 자신에게 맞는 문제집을 찾아 위의 공부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목표 점수를 이뤄낼 것이다.

글 - 정예슬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한국 TOEIC 위원회

위드 코로나의 이모저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다. 매년 바뀌는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하거나 급하지 않은 약속은 전부 미루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쓰고 있지만 지속되는 불편함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이런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숨구멍을 가져다줄 위드 코로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단계적 일상 회복

정부는 10월 25일까지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다면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거쳐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를 10월 말에서 11월 초라고만 밝혔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건 10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청 국정감사 때이다. 이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재보다 더 악화된다면 최악의 경우 10월 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드 코로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방역수칙 역시 이전보다 단순화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수칙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방역단계를 한 번에 낮추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기 위해 ▲병상 확보 ▲백신패스 도입 ▲먹는 치료제 구매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국가들

세계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일상에 제약을 두기보다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였고 코로나 환자 모니터링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싱가포르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지난 6월 “나쁜 소식은 코로나19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좋은 소식은 코로나19와 함께라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로 인해 추가 규제 완화를 멈춘 상태지만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지금까지 운영해온 위드 코로나 정책은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4월 초 첫 긴급사태 발령 이후 약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동 제한을 실시했다. 하지만 10월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도쿄 올림픽 개최 당시보다 10분의 1 감소한 1,246명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0월 14일 기준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75%, 2차 접종률은 66%에 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일본은 현재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창이다. 국내선 하루 예약 건수도 10배가량 증가했으며 입장 인원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난 도쿄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주요 관광지들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또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각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봄 신입사원 채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무실 출근 제한을 완화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기대효과

위드 코로나의 시행이 성큼 다가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여행업계들이 다시 일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에 인천에 입항할 예정인 월드크루즈 3척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 중 내년 5월 인천을 방문할 예정인 독일 하팍로이드 크루즈선사인 한세아티 인스퍼레이션호는 인천을 경유하는 것이 아닌 출발지로서 운항될 계획이다. 인천을 출발지로 한다면 세계 각지의 크루즈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천항에서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로 인해 크루즈뿐만 아니라 숙박이나 항공 등 관련 업종들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크루즈 여행을 즐기기를 위해 인천으로 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크루즈 입항이 금지된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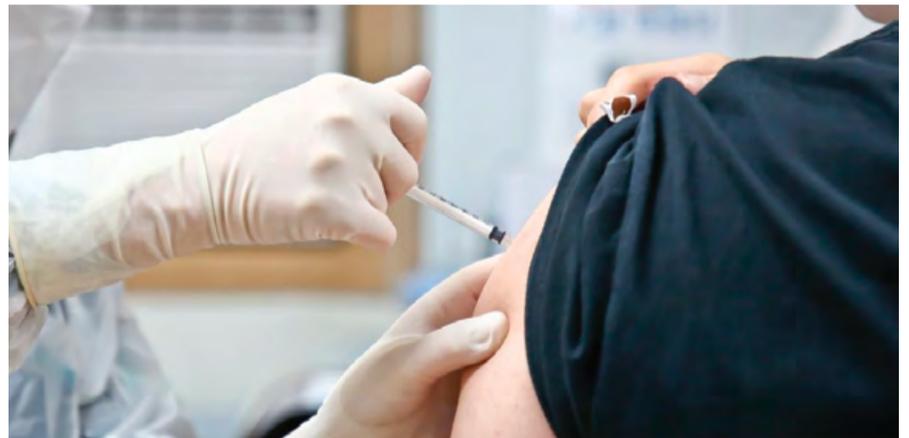


지만, 크루즈 운항 재개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치 노력과 준비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들 역시 여행 상품 강화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숙박, 여행 앱들의 매출이 급락했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소식에 향후 여행이 늘어날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W여행컬처 앱은 공연 티켓과 국내 숙박, 액티비티, 항공 등 위메프의 여행·공연 상품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하기 시작했다. 롯데온은 2만 개가 넘는 야놀자의 레저·숙박 상품을 예약·판매하며 여행 상품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온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여행 관련 상품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티몬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고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둔 만큼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여행 카테고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한동안 공연이 불가능했던 공연·예술분야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오프라인 콘서트 계획을 밝히는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극과 뮤지컬도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한 회차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문화업계 역시 위드 코로나의 시행에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해 다중시설 이용이나 등교, 회사 출근 등 많은 분야에 있어 일상적인 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국내의 여행 역시 제약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는 등 일상의 자유가 전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지쳐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본인의 자유만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본인을 위한 일이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행되기 전까지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나 의료분야 등 여러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률의 증가를 바탕으로 시행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현재,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의 시작을 통해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해지길 바라 본다. 또한,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 이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글 - 박미경 수습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인터파크투어, 인천항만공사, 이데일리
[참조] 연합뉴스, 이데일리

기자담판 - 방역과 차별, 그 사이에서 -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 혹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더불어 백신 미접종자는 시설 이용 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백신패스가 과연 옳은 방식인지, 옳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기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백신패스는 방역을 위한 장치로써 필요하다. 지난 9월, 코로나19 확진자 중 성인 환자의 92%는 미접종자 혹은 2차 접종을 끝내지 못한 불안전 접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싱가포르의 신규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중증화와 사망 위험은 크게 줄었다. 더욱이 옹예쿱 싱가포르 보건장관은 접종 완료자가 미접종자에 비해 위중증화 및 사망률이 2배 낮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 19를 극복할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때문에 백신패스는 정부가 미접종자를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백신패스가 시행된다면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이 아닌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혜택은 사적 모임의 수를 늘리거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전히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우리나라는 백신패스를 단순히 접종률만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기존 거리두기를 안전하게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접종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접종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유럽에서 접종률이 안 올라갈 때 사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12세나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부분을 예외로 두고 원치 않는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기저질환 환자와 임산부, 아동은 PCR 검사를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는 등의 보완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예방접종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 접종이 시작됐다. 때문에 위드코로나로 긴장감이 풀릴 시점에서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백신 패스가 더욱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차별'이라는 대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다.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백신의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 접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두가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일상을 함께하는 감기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방역 조치에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새로 나오는 방역 조치가 등장한다. 그 과정에서 백신패스가 나타났고, 이를 우리의 방식으로 바꿔 시도해 본다면 일상회복에 한 단계 더 다가가기라 생각한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참조] 동아사이언스, MBC 뉴스, 전남매일

지난 9월 말 정부는 미접종자들이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백신패스'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가천대학교 감염내과 임중식 교수가 언급한 '미접종자에 비해 접종완료자가 바이러스 배출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신 미접종률(10월 기준)이 약 21%로 나타난다는 것은 특정 질병에 의한 불거피성 혹은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만 누적 312,273건이다. 이중 약 96%는 여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과 같은 사례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 정부의 미숙한 대처가 되레 불만을 키운 것이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난 1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작 접종이 원활해진 후 인과성 평가 과정에서 백신과 이상반응 혹은 사망에 대해 인과성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외면했다. 접종 이후 사망자 1,080명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고작 2건이고, 이외에는 모두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돼 백신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어떤 중증의 피해가 있을지,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질병관리청이 백신 인과성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며 빠져나가는 태도는 백신 접종을 더욱 기피하게 했다.

자유 국가에서 국민은 자기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 인해 전체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이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본인의 신념과 건강 상태로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즉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가해 강제성을 드러냄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구조 안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코로나와 일상으로부터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역관리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글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참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매일경제



이크, 에코!

기업의 위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일명 '그린워싱' 논란을 일궜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보호를 향한 눈속임, 그린워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여태 제공된 유기농 마크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줬고,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적 인증제

도는 174개나 존재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많고 많은 인증제도 가운데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다. 판매자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증명되지 않은 점을 친환경적이라고 속일 수 있다. 이렇듯 그린워싱은 환경보호가 대중화되는 시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행태다.



스타벅스는 친환경 마케팅에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로 2018년에 종이 빨대를 도입했으며, 2025년까지 매장 내 종이컵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리유저블 컵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그린워싱 논란을 빚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홍보사회공헌팀은 “다회용 컵의 상태가 최상일 때 권고 사용 횟수는 20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회용 컵이 일회용 컵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3회 이하로 사용할 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컵이 제공되는 이상 제공된 리유저블 컵의 재사용률은 현저히 낮다. 환경을 위한다는 정당

성 아래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생산한 셈이다.

현대기업 또한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탈석탄'을 선언함과 동시에 12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현대기업의 이중적인 면모를 꼬집어 광고를 게재했다. 이어 줄리엔 빈센트 마켓포시스 대표는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이니스프리는 출시한 화장품 용기가 종이라는 문구를 적으며 친환경적인 면을 부각했으나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에 나선 기업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검증할 글로벌 표준도 미흡하며, 눈에 띄지 않는 위장환경주의를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환경부가 제공하는 환경마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증 마크와도 구분 가능해야 한다. 제품의 전 성분을 확인하는 것도 판단하기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현명한 소비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더 철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환경보호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소비 형태만큼 기업들의 솔직한 자세가 나오길 바란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참조] 오마이뉴스, 시사포커스, 천지일보

점점 빨라지는 해양 변화, 그 위험을 알리다

기후 위기의 급속화로 '지구온난화'가 10년 앞당겨졌다고 한다.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상승한 2021년, 전 세계는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1.5도 상승에 이르면 초 극단적 기후 위기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변화에 인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제작된 조형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코로나19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강타한 엄청난 폭우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 때아닌 폭염과 산불, 동아프리카와 중동을 지나 중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막 매뚜기떼의 습격, 한국의 숲과 도심에 장악하고 있는 매미나방과 대벌레 떼의 출몰 소식까지.

지구의 온난화는 북극과 남극에 고온현상을 가져와 눈과 얼음을 녹이고 있다. 눈과 얼음이 녹으면 북극에서는 북극곰이 빙하 위에서 사냥을 할 수 없게 돼 굶어 죽게 된다. 남극의 눈과 얼음이 녹아 바다로 들어가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세계 인구 약 30%가 살고 있는 해안 지대 침수가 시작되어 물에 잠겨 사라지는 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얼음과 눈은 태양의 에너지를 반사시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얼음과 눈이 녹아 사라지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는 반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와 지면으로 떨어

어져 지구의 온도를 높게 된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녹조를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가로 해양의 동물과 식물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온실효과뿐만이 아니라 해류의 역할도 있다. 해류는 극지방의 차가운 물과 적도의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빙하나 만년설이 녹아 막대한 양의 담수가 바다에 유입되게 되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진다. 해수의 염도가 낮아지게 되면 물의 순환을 멈추게 하고, 고위도 지방의 해수는 더욱 차가워져 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빙하가 찾아올 수도 있게 된다. 2021년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있다.

빨라지는 해안 침식, 기후 변화가 영향



최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백사장이 크게 깎여나가는 이례적인 '해안 침식' 현상이 잇따라 관측됐다. 백사장이 깎여나가 절벽처럼 변했고, 주변에는 접근 금지선이 설치됐다. 9월 중순에는 순식간에 모래가 쓸려나가 산책로 일부 구간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해안의 침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해안침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로 바닷물의 흐름이 바뀐 것이 침식의 원인이었다면, 현재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의 잦은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해안침식은 어느덧 동해안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광활했던 백사장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바다와 맞닿은 건물들 역시 침수 위기에 놓이고 있다. 이에 매년 수천억 원이 해안침식 예방을 위해 투입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기후 변화 경고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수면 상승, 몰디브의 외침



몰디브는 아시아 남부 인도양 중북부에 위치한 여러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이다. 90%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물 위로 올라와 있는 10%는 수백 제곱미터에 걸쳐 1,20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매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몰디브는 최고의 신혼여행지이자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북극과 남극 지대의 기온 상승, 빙하 감소,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몰디브가 물에 잠기고 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해수면이 18-59cm 상승하는 2100년에는 몰디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성을 깨달은 몰디브는 지난 2009년 '수중내각 회의'를 진행하며 이러한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으며, 지구온난

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전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넣기 시작했다. 몰디브 정부는 수중 회의에서 같은 해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 회의에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협정을 맺을 것을 촉구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수중 회의 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지구의 미래에 대한 많은 협정들을 맺어왔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의 실천과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처사이다.

이러한 몰디브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기 전에 새 국토를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몰디브 대통령 모하메드 나시드는 UN 회의에서 "만약 세계를 구하길 원한다면, 몰디브를 구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FRESHLY RECYCLED CLASSICS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전제품 구매 시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하기, 쓰지 않는 제품의 콘센트를 뽑아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담배꽂이는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바다 모래사장뿐만 아니라 도로와 하천에서부터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대로 버리고 주워야 한다. 가급적

이면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하는 것도 환경오염 예방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오염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방법이 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다



다음 조형물은 유럽 스페인 빌바오 네르비온 강에 설치된 예술 조형물이다. 멕시코 출신의 초현실주의 조각가 루벤 오로즈코가 만든 비하르라는 이름의 이 작품은 바스크어로 내일을 의미하며 지역 자선단체의 환경 캠페인을 돕고자 제작됐다. 파이버 글라스 소재로 120kg 무게에 달하고 강물의 흐름에 따라 소녀의 얼굴이 물에 잠기고 다시 물 위로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로즈코는 현지 언론 '니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소녀처럼 물에 가라앉을 수도, 반대로 고개를 내밀고 살 수도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환경 기후 변화에 경각심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조형물은 2019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 국내 최대 담배 생산 기업인 KT&G 본사 앞에 전시한 대형 담배꽂초 트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와 함께 전시를 기획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담배 필터가 바다에 버려져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편, 부산에서는 전 지구적 문제인 해양오염을 고발하기 위해 제7차 국제 해양 쓰레기 콘퍼런스'를 기념하는 환경전시회를 10월 초부터 KT&G 부산 상상 마당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기후 변화 진행 속도 >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

기후 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인류가 대응할 시간은 짧아지고 있다.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는 작지만 그것이 모이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된다.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보는 파봉의 방법으로 생활 폐기물을 5년 단위로 조사한 결과, 국민 1인당 하루에 930g 정도를 버리는 것으로 발견됐다. 여기서 소각이나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모두 매립되는데, 이때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한 해에 1,200만 톤이 넘는다. 이는 1초에 5톤 트럭 5대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은 양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지속 가능한 제품

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 - 김주희 수습기자 wngml5216@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뉴시스, 프라이탁 홈페이지, 루벤 오로즈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뉴스1
 [참조] 제주MBC, 연합뉴스, 조선일보, 이로운넷



사진기획



재즈댄스

빙글빙글 재즈를 추자
고독을 심어 인간을 수확하는
저무는 발 한복판에서

가시덩굴이 인간을 타고 오른다고
인간을 선인장이라 부르지 않잖아
피가 붉다고 우리 모두 고독인가요

우리는 발뒤꿈치에서 태어난 비둘기
젖은 날갯짓으로
이데올로기를 내려다 보다

흐드러질 우리의 날갯짓은
결국, 그레 결국 꽃을 피워낼텐데

문명의 뿌리에서 스며든 시퍼런 곰팡이와
실수를 배설하는 플라나리아
추앙받는 악육강식의 드라마를
우리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이제,
빙글빙글 재즈나 추자고요

글 - 김민진 기자 zzzzzzzzzin@sungkyul.ac.kr
사진 - 이채영(연영17)



여기 뭐 할 거 있선? 숙대입구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서울 메트로, 역마다 어떤 놀 거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만든 대리만족 코너. 여기 뭐 할 거 있선? 이번 호에서는 곧 만개할 단풍을 기대하며 서울남산타워 아래 위치한 숙대입구역에 가봤다.

힙한 달동네 후암동

후암동은 남산 아래 위치한 탓에 경사지고 그곳에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돼 달동네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창업을 위해 모여든 청년들이 '루프탑'이 있는 카페와 식당을 오픈하며 동네 전체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후암동에서 놀래

후암동은 크게 경사진 곳과 경사지지 않은 곳으로 나뉜다. 경사진 곳은 루프탑 카페나 펍 등이 많고, 경사지지 않은 곳은 카페와 식당이 많다. 남산뷰라 낮에만 예쁘다고 생각하면 오산. 밤엔 밤만의 무드가 올라오니 낮부터 밤까지 머무르길 추천한다.



★★★★★

숙명여대와 서울역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한 후암동, 날 좋을 때 들러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공간이다. 단풍이 만개해 세상이 붉어질 때쯤 한 번 가보길 추천한다.

글/사진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참조]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가을이 온 걸 파란 하늘이나 선선한 바람이 아닌 콧물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콧물이나 재채기, 코 막힘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증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알록달록하게 물든 단풍을 보며 가을이 왔다는 걸 실감한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원인 물질에 노출돼 생기는 과민성 염증 반응이다. 이는 꽃가루나 집 먼지 진드기,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털, 미세먼지 등이 예민한 코 점막을 자극해 발생된다.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가려움증이 있다. 콧물과 재채기는 주로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고 코 막힘은 종일 지속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코감기로 오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물처럼 맑은 콧물이 흐르고, 수 주일에서 수개월 씩 지속된다는 점에서 코감기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알레르기 비염은 약물 치료와 면역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전자는 항히스타민제를 경구 복용하거나 항콜린 스프레이 제제를 콧속에 뿌려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반응을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특정 항원에 대한 노출을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그 농도를 높여 나가



1년 이상 장기간 치료 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알레르기 비염은 치료와 더불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코는 습도 차에 예민하게 반응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콧속이 쉽게 건조해진다.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집 먼지 진드기는 습도 60~65%에서 번식이 활발하므로 실내 습도를 40~50%로 유지하고 50%가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꽃가루를 최대한 피하고 귀가 시에는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 면역력을 기르는 것 역시 좋은 관리법이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끼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뺨 뚫린 코로 상쾌한 가을 공기를 들이마시길 바란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 - 서울경제 / [참조] 스포츠조선, 아이뉴스24



돈 vs 양심

‘자본주의(資本主義)’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로, 오늘날 세계를 중심으로 뻗어있는 하나의 사상이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대기업의 발전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과연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이점만 가져다줬을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다룬 두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오징어게임
개요 ▲드라마 ▲스릴러
감독 황동혁
편성 2021.09.17. 넷플릭스 독점 공개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빛쟁이에게 쫓기는 것은 물론이요, 노름에 빠져 이혼 후 하나뿐인 딸에게 밥 한 끼 못 사주는 성기훈.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제안한다. 게임에서 이기면 거액의 돈을 준다는 것. 그의 명함을 받은 기훈은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게임이 시작된다. 하지만 게임에 실패 시 목숨을 잃는다는 걸 알게 된 참가자들은 게임을 계속할지 말지 투표를 하게 된다. 이때 오징어 게임의 관리자는 ‘기회’를 잡을 것인지, 남은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 것인지 결정하라 한다.

“놀이를 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게 기회입니까”

가진 자의 횡포를 기회라고 포장하는 관리자들에게 화가 난 참가자들. 하지만 쏟아지는 돈뭉치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은 점차 바뀌게 된다. “탈락한 사람만 1억씩 받아. 게임을 이긴 건 우린데”, “어차피 나가도 생지옥이야”라고 하며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과반수로 게임의 중단이 결정되고, 현실로 나가게 되지만 기

훈과 다수는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두 번째 게임에 참여하며 그의 오랜 친구인 상우는 게임 내용을 미리 알게 된다. 하지만 경쟁자인 기훈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기훈의 어려움을 외면한다. 과연 기훈은 이 난관을 이겨내고 최종 승리를 거머쥌 수 있을까?

“탈락한 사람만 1억씩 받아. 게임을 이긴 건 우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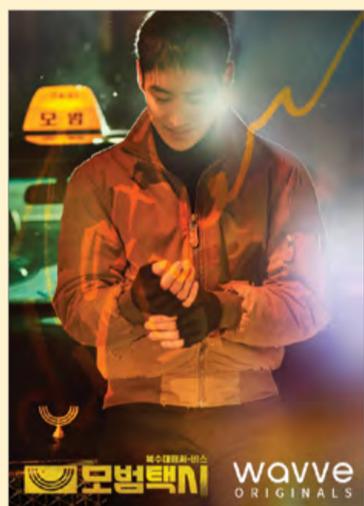
이 대사는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약 200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때 나온 대사다. 돈뭉치를 보고 결국 본인을 넘어 사망자의 목숨까지 경시하는, 인간성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작 중 조상우라는 인물을 통해 돈을 위해 사람과 양심을 배신하는 행동을 비추며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각 인물의 내면과 돈을 향한 갈망, 현실 세계의 고난에 대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힘 있는 자들을 지적한다. 즉, ‘기회’라고 포장하며 없는 자들의 간절함을, 특히 돈의 때를 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놀이를 이용한 점에서 그들의 인간성의 상실과 잔혹성을 알려준다. 더욱이 순수했던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되면서 돈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끈다.



〈오징어 게임〉은 돈이 인간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 돈으로 생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만약 돈에 대한 집착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하다면 보기를 추천한다. 하지만 잔혹성과 더불어 자극적인 요소가 다수 등장하므로 시청에 주의를 요한다.



제목 모범택시
개요 드라마
감독 박준우
편성 SBS 2021.04.09. ~ 2021. 05.29.
 웨이브 ORIGINAL 독점 공개
등급 청소년 관람 불가

“직원도 사람이다”

유 데이터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된 서영민. 하지만 회사를 다닐수록 그 실체를 알게 된다. 회장의 폭행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결국 반 년 만에 그만두고 관련 기사에 ‘직원도 사람이다’라는 댓글을 남기는데... 이후 유 데이터 직원들이 찾아와 서영민을 폭행하며 혼수상태에 빠트린다. 그렇게 사적 복수를 해주는 택시회사인 무지개 운수의 김도기가 유 데이터에 잠입하게 된다.

“내가 너의 줄이랑 백이 돼줄게”

잠입에 성공한 도기는 그곳에서 점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매출이 올랐다가 돈을 뿌리고 줄과 백이 돼준다는 박 회장과, 그의 말에 환호하지만 영민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 척하기 급급한 직원들. 도기는 달콤한 말로 직원들을 끈 후 지위를 이용해 횡포와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박 회장의 모습에 어이없어 한다. 그 후 그는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을 목격하게 되는데... 과연 도기는 사적 복수에 성공하게 될 것인가?

“당신의 양심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이긴 사람은 남아서 승승장구하지만, 양심이 이긴 사람은 쫓겨나서 보복당하는 곳이다” 유 데이터에 대해 작 중 등장인물인 박하나 검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 대사

는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심을 버리고 무슨 일이라도 해도 괜찮다는 듯 ‘갑질’과 횡포, 폭력을 일삼는 유 데이터 기업에 대해 하는 말이다. 즉 이 드라마는 가상의 기업 뒤에 숨어있는 대기업들과 그들의 횡포를 지적한다. 또한 그들의 횡포를 눈감아주는, 양심이 아닌 돈의 노예가 된 직원들에게도 충고함과 동시에 과연 나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생각하고 반성하게 해준다.

〈모범택시〉는 이 외에도 보이스포싱, ‘물카’ 범죄에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고 복수해 준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왜 법 대신 사적인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의 부조리함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작품을 추천한다. 하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인 만큼,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요소에 주의를 요한다.

“법원권근,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깝다”

-〈모범택시〉

〈모범택시〉는 피해자를 취업난과 더불어 학력과 스펙도 변변찮은 신입사원으로, 가해자를 힘이 있는 대기업으로 설정하여 약자가 기업의 횡포에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자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 사회를 향해 되묻는다. 즉 이 작품의 ‘사적 대항 복수 서비스’

라는 소재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당한 피해의 보상을 사적 복수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개인에게 이 사회와 법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또한 〈오징어 게임〉 속 가혹한 현실을 피해 목숨을 건 게임의 세계로 돌아온 이유와 돈 있는 자들의 게임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찾아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필자는 두 작품들을 통해 정의란 돈이 아닌 진정한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편이 돼주는 사회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우리는 있는 자들이 활발하게 도와준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기업과 사회뿐만 아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소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돈과 양심 중 조금이라도 양심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노력 말이다.

당신에게 있어 돈과 양심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소개된 작품들을 통해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자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글 - 이서연 수습기자 tjdu1596@sungkyul.ac.kr
 사진 - 넷플릭스, 웨이브
 [참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놀이 옛보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드라마에 나온 우리들의 어렸을 적 놀이는 해외에서 체험 행사를 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이들을 언제 접하게 됐는지, 본래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번 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즐거움과 더불어

놀이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고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유아기 시절의 놀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높여주고 신체를 활발히 움직여 평형 능력 및 인지발달을 끌어올려준다. 성인에게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강박감을 해소하고 피로를 풀며 생활 의욕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강강술래를 통해 함께 달리며 감정을 공유하는가 하면 장치기 같은 집단 놀이로부터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 이러한 놀이는 우리나라만의 정서를 심어줌과 동시에 성장의 촉진제로 작용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놀이는 어땠을까? 과연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유래와 방식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7월부터 100여 일간 계속 새벽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오후에 옅어지다가 해가 질 때 즈음에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끊임없이 만개하는 무궁화의 끈기와 인내는 우리 민족의 특징을 자아낸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화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의 유래는 어떨까?

놀이는 놀랍게도 일본 놀이인 '다루마상가고론다(だるまさんが転んだ)'에서 유래했다. 우리 말로 '달마(오뎅이)가 넘어졌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놀이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알려졌다. 그리고 무궁화 사랑을 실천한 한말의 독립운동가 남궁억 선생이 이름을 바꾸며 퍼진 것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는 골목에서 다루마상가고론다 놀이를 하던 아이들을 보고 막는 것을 대신해 현재의 이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퍼뜨렸다고 한다.

놀이는 술래 한 명을 정하며 시작한다. 술래는 벽 앞에, 나머지는 술래와 멀리 떨어져 출발선 바깥쪽에 선다. 술래가 뒤를 돌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면 다른 사람들은 술래가 못 본 사이에 가까이 다가간다. 술래는 말을 마친 뒤 뒤를 돌고, 이때 움직인 사람은 술래에게 잡혀 손가락을 걸게 된다. 가장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술래와 여태 잡혔던 사람 사이에 이어져 있던 손가락을 끊고, 모든 사람들이 술래에게서 달아나게 된다. 끝으로 잡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술래가, 없다면 했던 사람이 다시 술래를 하며 놀이를 재시작한다. 이처럼 술래는 다른 사람들의 방침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은 술래에게 몰래 접근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이 놀이의 묘미는 단순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긴장감을 나누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톱! 데구르르

구슬치기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하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일제강점기 때 생긴 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놀이라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의 근거는 1869년 일본에서 유리가슬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라무네'에 있다. 음료수 속 유리구슬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고, 이내 '다마(玉)치기'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유행이 됐다고 한다. 전통놀이로 하는 주장에 따르면 옛날 옛적부터 유리구슬이 아닌 돌맹이를 가지고 유사한 놀이를 했다는 것에 비롯됐다고 말한다. 비록 유래는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즐기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했다.

놀이 방법에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땅에 구멍을 판 뒤 정해진 순서대로 넣는 볼뿔기가 있다. 던진 구슬이 구멍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다음 구멍을 도전한다. 실패했을 땐 차례를 기다리다 실패했던 구멍에 재시도한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구슬을 맞추면 다음 구멍에 넣지 않아도 되는 규칙이 있다. 보편적인 방식인 알까기는 상대의 구슬을 맞추는 놀이다. 순서를 정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구슬로 상대 구슬을 쳐낸다. 맞추는데 자신이 없다면 상대가 내 구슬을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땅에 삼각형을 그려 정해진 개수만큼 구슬을 넣고 상대방의 구슬을 삼각형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많은 이들이 즐겨 했던 또 다른 놀이 형태다. 이 외에도 벽을 이용하는 벽치기, 손안에 구슬이 몇 개 들어있는지 맞추는 훌쩍 놀이도 존재한다.



영차영차

줄다리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중 하나다. 옛날에는 명절이나 정월대보름과 같은 줄다리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중 하나다. 옛날에는 명절이나 정월대보름과 같은 세시풍속 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암줄과 수줄로 이루어진 쌍줄을 당기는 방식이었다. 인접한 마을끼리 치러지는 줄다리기는 주민 모두가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형성했고, 마을끼리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 협동과 단결을 이끌었다. 또한 지역마다 특색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여주 쌍룡줄다리기는 놀이가 끝난 뒤 줄을 강 위에 띄어 보내고, 수원 고색동 줄다리기는 줄을 해체해 논에서 불을 태운다. 이러한 지역별 다양한 형태와 문화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도 등재됐다.

경상남도 영산 줄다리기는 본래 정월대보름에 벌이는 것과 달리 3.1민속 문화제 때 민주주의 정신을 담아 시행한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하다. 또한 줄다리기를 하기에 앞서 단제가 있는데, 먼저 아이들끼리 작은 줄을 당겨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그다음 줄 위에 대장들이 서로 몸 다투는 일명 용싸움이 벌어진다. 뽕짚 5t 트럭 두 대의 분량을 이용해 꽤 큰 줄을 완성시키고, 줄이 완성된 후엔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면서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을 알린다. 암줄과 수줄을 통나무로 결함한 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줄을 당기고, 끝나고 나면 사용한 줄을 끊어 가져간다. 이는 지붕에 올려두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거나 논밭에 거름으로 사용하면 풍년이 든다는 등의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줄다리기는 남녀가 구분된 쌍줄이 아닌 하나의 줄로 통일해 팀을 나눠 승패를 겨

룬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엔 끈의 거친 표면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헬멧을 착용한다. 나뉜 두 팀의 중간을 기준점으로 하고, 한 팀이 기준점을 완전히 넘어서면 놀이에서 지게 된다. 여기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맨 앞뒤로 힘이 좋은 사람을 배치하거나 '영차영차' 혹은 '하나둘'이라는 구호를 외쳐 팀의 사기를 북돋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의 줄다리기는 여러 마을의 큰 행사 중 하나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면, 현재의 줄다리기는 놀이의 일종으로 옛 시절의 단합을 이어받아 끌어올리는 데 의미를 둔다.

우리는 늘 문화에서 '고유'를 찾지만 그 유래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즐겼는지, 그럼으로써 무엇을 얻었는지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고착화돼 있을 것이다. 현재 오징어 게임 속 놀이를 즐기는 여러 나라의 모습처럼 웃음을 피고 쌓아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곧 새로운 놀이가 우리를 또다시 반길지도 모르니.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Google

[참조] 지식백과, 한국문화, 지역문화



말의 소리와 국문법을 노래한 10월의 주시경

지난 10월 9일은 제575주년 '한글날'이었다.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 창제자와 창제 시기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이며, 특히 자주, 애민, 실용에 초점을 뒀 만든 글자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에 가장 적합하고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고 유지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훈민정음의 위대한 탄생

한글이 창제되기 전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자를 사용했다. 당시 한자는 양반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한자를 익히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글이 쓰여 있어도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사람의 발음기관과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본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글을 만들었고, 누구나 쉽게 글자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 한국어의 시작, 주시경

주시경은 한문을 배우던 중 '글이라는 것은 결국 적는 도구인데, 한문으로 적어 배움이 쉽지 않은 상황'을 자신과 주

변인들을 통해 느끼며 우리만의 글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렇게 그는 19세기부터 배재학당에서 학습을 이어나갔고 한국인을 위한 쉬운 배움의 길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배재학당에서 주시경은 더불어 우리말로 창간된 독립신문에서 교정과 편집을 담당하며 국문 전용과 띄어쓰기를 도입했고, 한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보급에 대해 힘썼다. 특히 1896년에 국문동식회를 결성해 국어 맞춤법을 정리하는 등 한글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 이는 후에 조선어연구회 및 한글학회로 계승돼 지속적인 한글 연구 및 보급에 중요한 발판이 됐다.

배재학당을 졸업한 1900년 뒤에도 한글에 대한 주시경의 관심은 그치지 않았다. 당시 일제가 한국어를 말살하고 식민지화 정책을 감행하려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경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한글 창제 정신인 애국정신을 고취하며 독립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우선 1906년에 '대한국어 문법'을 발간해 올바른 맞춤법의 규정 및 음운 체계를 설명했고, 뒤이어 1907년에 국어강습소를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그리고 1908년에는 '국어문 전용약'을 통해 국문법과 음성론, 소리갈 등에 대한 설명을, 1909년에는 초등 국어 교과서를 발행하며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어연구회에 참여해 국문의 연원 및 철자법을 담은 '국문연구안'을 내며 우수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1914년에는 '말의 소리'를 간행하며 국어학의 음성·음운학의 기초를 다지며 한자로 이루어진 술어를 한글화했다.

#그의 뜻이 담긴 말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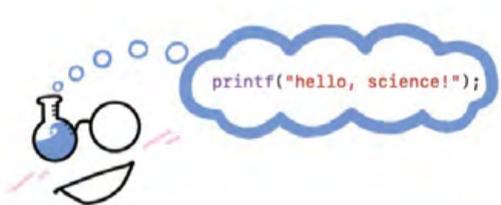
비록 국어에 대한 일본의 침탈과 탄압이 거세지면서 주시경의 뜻을 담은 조선어강습소는 1911년에 한글 연구를 멈추게 됐지만, 한글 계승에 대한 애정과 노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의 제자 최현배는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몰두해 한글 연구를 이어나갔으나, 1943년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조선어학회 소속 33명과 함께 투옥된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글을 향한 애정은 계속됐고 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맞서 끊임 없이 노력했다. 끝내 1947년, 우리말 큰 사전은 해방 이후 편찬 시작 25년 만에 무사히 발행되며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자기 나라를 보존하며 자기 나라를 일으키는 길은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는 데 있고,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는 길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한글'이라는 말을 창시하고 우리말의 보급과 유지, 발전에 큰 힘을 쏟은 주시경 선생이 남긴 말이다.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제2의 눈이다.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줄임말도 좋지만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며 애국심과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과학적임과 동시에 심미적인 한글이 많은 사람에게 바른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우리 먼저 한글사랑을 실천해보자.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 중도일보

[참조]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printf("hello, science!"); - 통조림, 뽕, 따!

자주 못 보는 가족과의 만남, 명절의 달콤한 휴식도 한몫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석의 꽃은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주고받는 선물세트라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통조림 선물 세트는 쌓여갈수록 든든해진다. 다른 음식과는 다르게 금방 먹지 않아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이 물건, 사실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을지도? 이번 호에서는 '통조림'의 역사를 출력해보자!

통조림은 양철 등의 용기에 식품을 채우고 밀봉한 뒤 가열 살균을 해 식품의 변패를 막는 대표적인 저장식품의 예다. 마트나 편의점, 하다못해 동네 슈퍼를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조림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아이들의 반찬으로 자주 등장하는 햄과 참치부터 복숭아 같은 과일, 심지어 빵 같은 간식도 근래엔 자주 보이고 있다. 통조림은 대체 언제부터 우리 삶에 스며들었던 것일까? 우선 통조림이 나오게 된 계기를 살펴보자. 프랑스 산업 장려협회가 생긴 후, 1809년 니콜라 아페르에 의해 고안된 병조림은 통조림의 아버지뻘이라 말할 수 있다. 삼페인 병에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의 채소를 넣어 밀봉한 간단한 구조의 발명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전쟁으로 식량 부족 사태에 시달린 프랑스에게 병조림은 혁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장기간의 종군으로 지친 병사들은 신선한 음식의 부족으로 여러 질병 노출에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810년, 비교적 파손이 잘 일어나는 병의 특징을 보완하고자 영국의 피터 듀란드는 삼페인 병 대신에 철관 안쪽에 주석으로 코팅한 양철용기를 발명했고, 두 명이 고안한 제조기술은 미국으로 건너가 크게 발전했다. 수공업으로 제조된 통조림 용기는 점차 기계화되고, 그 기술이 혁신됨에 따라 제관업이 통조림 제조업으로부터 분리·독립되면서 통조림 산업의 기초가 확립됐다. 비록 전쟁을 위해 고안된 발명품이지만 근대에 와서도 그 쓰임이 바뀌지 않고 민간에게 널리 사용되는 것은 통조림이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다.



통조림이 여전히 소비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유통기한이 길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방부제나 보존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다수 포함되지 않을까'라며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통조림에는 이런 보존제가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 식품을 채운 캔을 밀봉하고,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오랜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은 공기 중 미생물로 인해 부패하지만 높은 열을 가하면 미생물이 죽고, 밀폐하면 미생물의 발생은 억제된다. 실제로 1819년 북극 탐험대가 휴대했던 통조림 두 개가 92년 뒤인 1911년 발견돼 영국에서 이를 개봉 및 시식한 바가 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용물의 상태와 맛에 별 다른 이상이 없어 통조림의 우수한 식품 보존력을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됐다. 그러나 모든 통조림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냥 몇 십 년이 지나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찌그러진 통

조림의 경우 통조림에 균열이 생겨 세균이 침범할 수도 있고, 이때 내부 코팅의 손상으로 환경호르몬 등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통조림 캔의 윗면과 아랫면이 부풀어 있는 것은 부패 가스가 찼다는 신호로, 캔의 형태에 변형이 생겼다면 섭취하면 안 된다.

통조림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발암 가능 물질 '퓨란'이 포함됐다는 논란이다. 식품 주성분 중에서 탄수화물인 당과 단백질인 아미노산을 열처리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인 퓨란은 국제 암기구에서 잠재적 발암물질 2B로 지정됐다. 그러나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이광근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캔이나 통조림 외에도 ▲커피 ▲간장 ▲가열된 분유 ▲이유식 등 다양한 식품에서 검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언급된 발암 가능 물질은 현재 규제가 국제적으로도 이뤄져 있지 않고, 규제보다는 각 나라마다 권고사항이 존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아직 퓨란의 독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통조림을 개봉하고 2~5분정도 기다렸다가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 일상에 당연하게 스며들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통조림, 오늘 저녁은 통조림과 함께 지식적으로 배부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YTN사이언스/[참조] YTN사이언스, KBS

수습기자 칼럼

가족의 의미



박미경 수습기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혈연 중심 사회였다. 또 호적으로 묶여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만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혈연 중심이 아닌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의 모습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핵가족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필자 또

한 교양 수업 때 교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핵가족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후 왜 핵가족의 모습만을 떠올렸는지 생각해봤다. 사회와 미디어에서 핵가족만을 완벽한 가족의 모습으로 다루는 일이 흔하게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녀가 아이를 낳고 사는 엔딩이나, 사랑보다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 혼자 사는 사람에게 결혼과 임신을 장려하는 등의 연출에 자주 노출됐다. 미디어의 이러한 연출은 핵가족이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굳어지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이에 도전하듯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송인 사유리는 결혼하지 않고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이전까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선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사유리는 KBS 1TV ‘뉴스 9’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건 어려웠

다”며 비혼 상태에서 임신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 JTBC 예능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는 여러 이유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여성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가족지 않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입 모아 말했다.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사유리가 KBS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씨의 출연에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청원이 올라왔다. 다른 가족들의 출연 소식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던 사람들이 사유리의 출연 소식에만 청원하는 모습이 현대 사회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것만 같았다. 또,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

운다’의 유튜브 영상에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습들을 보며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 형국에 화가 났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이나 무례한 질문은 지양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편협한 사고이다. 현재 사회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우리 사회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속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글 - 박미경 수습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체험 에세이

꿀등에서 수석으로



김주희 수습기자

학창 시절 나는 꿀등만 하는 학생이었다. 학원 땡땡이는 물론 벼락치기는 기본이었다.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그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터다. 학교 선배의 권유로 인문학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이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국어국문학과 진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기초나 제대로 된 공부 방법 하나 없던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꾸준히 지속하는 것뿐이었다. 지금까지 안 했던 만큼 부족한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짬짬이 활용해 공부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된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뒤에서 1등만 하던 아이가 앞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다들 믿지 못했지만 오늘의 나는 하

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벼락치기가 아니라 꾸준함으로, 대충 보고 책장을 넘기는 태도에서 꼼꼼하게 내용을 살피는 공부 방법으로 바뀌었고, 당장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수업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 교수님의 사소한 농담마저 노트에 받아 적었다. 조별 과제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버스 탑승객이 아닌 버스 운전기사 됐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일찍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꿀등에서 수석으로 변하게 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와 의지’다. 남들보다 느린 것 같을 때는 더 끊임없이 달려나갔고, 잘 모르는 게 있을 땐 더 찾아보면서 전보다 더욱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연한 이치이면서도 생각보다 어려워 금방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번은 어렵더라도 두 번은 어렵지 않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변화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꼭 참고 2배 노력해 보기를 바란다. 그 성과는 꼭 참고 2배 더 노력했던 고통보다 훨씬 값질 것이다.

글 - 김주희 수습기자 sm961215@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코로나, 그 이후를 준비하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백신 접종 완료율이 61.6%를 나타내며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가까워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뜻한다. 이는 코로나로 멈춰버린 우리 일상에 활력을 일으켜줄 작은 불씨 같은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의견대립은 멈추지 않고 있다. 추석 이후 매일 1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는 건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상 회복을 강력히 외치는 이

유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속히 벗어나기 위함일 것이다. 여기서 부정적인 결과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를 말한다. 바이러스의 장기화는 사람들에게 무기력과 우울증, 체력 저하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생계유지, 실업자 급증 등 쉽게 재건할 수 없는 부분의 붕괴를 불러왔다. 실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지 오래인 만큼, 이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성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코로나 이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피드와 공감하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 회복의 과정은 치유와 회

복, 그리고 통합의 시간이 돼야 한다”라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처럼 더 나아질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우려하는 바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아득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 이전의 생활을 회상하며 우울감에 빠진다는 게 문제점이다. ‘그때가 좋았는데’,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계속될수록 그 깊이는 더해져만 갈 것이다. 장기가 계속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변곡점은 새롭게 바뀌었다. 비대면과 대면, 그 사이를 넘나들며 탄생한 다양한 문

화를 생각하고 적응해야 한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든 사이 세상은 폴더폰을 쓰다가 스마트폰 세대로 접어들어 최신 기기가 출품되는 정도의 시대 변화를 넘어 가상 세계를 창조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렸다. 또 문화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흐름, 부동산, 교육체계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급변하고 있다.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끊임없이 달라지는 시대 속에 언제까지 과거만을 회상하며 기다릴 것인가? 이제는 그러한 기다림을 넘어 변화된 시대를 맞이할 태도를 취해야 할 때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주간사설

한류 열풍을 바라보는 시선



임태균 교수
동아시아물류학부

21세기 들어서서 한국의 문화적 저력과 역량은 다양한 한류 문화콘텐츠의 형태로 꽃피우고 세계로 확산되어나가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르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방탄소년단(BTS)은 K-POP의 범주를 넘어서서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일컬어지며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영화계에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낸 데 이어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다. 어디 그뿐인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은 해외에서 각종 패러디 영상이 제

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열풍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일류(日流)'라고 하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미술사를 들여다보다 보면 에도시대(1603~1868)에 탄생한 일본 고유의 채색목판화인 '우키요에(浮世絵)'가 모네나 고희와 같은 서구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유럽으로 수출되던 도자기를 포장하던 용도로 쓰이기도 하던 우키요에는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작품이 출품되게 되는데,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원근법을 특징으로 한 우키요에의 매력은 기존의 미술을 탈피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던 당시의 서양화

가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기모노 입은 아내를 화폭에 담기도 했던 모네는 일본식 정원을 꾸며 놓고 그 유명한 '수련' 연작을 남기며 여생을 보냈다. 고희 역시도 일본의 우키요에의 화풍에 심취하여 안도 히로시게의 작품을 모사하기도 했으며 '탕기 영감의 초상'과 같은 우키요에의 화풍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남겼다. 우키요에는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서구 세계에 일본 예술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자포니즘(Japonism)'의 원류가 되게 되었다.

1950년대 일본 영화는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 러시를 이어가며 일대 부흥기를 구가하던 시절을 맞이했었다.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가 그 유명한 할리우드의 서부영화 '황야의 7인'으로 리메이크되고 또 다른 많은 영화들 속에서 오마

주로 등장하기도 한 것은 당시 일본 영화의 위상을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며 J-POP 드라마게임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대중문화의 각 장르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버블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을 이어오면서 일본 대중문화 역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어찌 보면 전세의 역적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 최근의 '한류'와 '일류'의 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문화는 돌고 도는 것이다. 지금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도취한 나머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문화는 새롭게 생성되고 발전되어 나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교수칼럼

캠퍼스에 침투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



이은성 교수
교육실장

대학생활의 멋이라고 할까, 적잖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대표적인 교내 활동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동아리 모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학생 자치단체로 운영되는 다양한 동아리들은 교과목 수업과는 다른 차원의 자기계발과 인간관계 형성 및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대학 내 동아리에 포교를 목적으로 설문조사, 봉사활동, 문화활동, 해외연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그리고 유사 기독교 동아리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다.

여러 언론 기사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대학가에 침투해 활동을 하고 있거나 대학생들이 특히 경계하여야 할 이단으로 YF(국제청소년연합)와 신천지가 있다. YF는 구원파에 의해 만들어진 선교단체이다. 구원파는 죄 사함과 거듭남,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의 교회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유혹한다. YF에 일부 학생들이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국내외 캠프를 통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6개 대륙 40여 개 캠퍼스에서 월드캠프를 열고 영어말하기 대회, 명사 초청 강연회와 지역 문화행사, 해외자원봉사 등으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추석에 '중국인 문화의 밤'을 대규모로 개최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포교를 시도한 타 대학의 사례도 있다.

최근 활발하게 캠퍼스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신천지 역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이단 중 하나이다. 신천지는 성경 외에 '신탄'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며 자의적으로 성경을 풀이한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여 기독교의 정통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천지는 설문조사, 상담, 각종 친교동아리 등을 접촉점으로 삼아 교제를 시도하며, 이에 응하는 학생들에게 친절하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으로 인도한다. <봉사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가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 친구 소개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신천지 복음방 이었던 거죠.> 언론기사에 소개된 타 대학의 실제 사례이다.

YF와 신천지 이외에도 대학가에 침투해 포교를 시도하고 있는 경계하여야 할 대표적인 다른 이단들이 있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는 2009년 대법원에서 성폭행 문제로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정명석이 교주이다. 캠퍼스에서 산악회, 재즈, 응원단, 댄스, 무술 등 다양한 활동으로 위장하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창시자를 참 하나님으로 신봉하는 통일교는 월드카프(W-CARP)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DCM은 많은 정통 개신교단으로부터 이단 내지 사이비성으로 규정된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운동 관련 대학선교기구다.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는 대학생종교개혁선교회(CMR)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대학에서 활동 중이다.

대학생 포교를 목적으로 한 캠퍼스 내 몇몇 이단들과, 언론에 알려진 그들의 포교전략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해보았다. 대학 캠퍼스 안에는 위와 같은 이단적 기독교 동아리가 아닌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활동해오며 캠퍼스 복음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 널리 알려진 동아리로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예수전도단(YWAM), 한국기독교학생회(IVF), 조이선교회(JOY) 등이 있다. 현재 성결대학교에 있는 건전한 인준 기독교 동아리로는 C.C.C, IVF, YWAM, 애향선교

회, 인터콥, 희망선교회 등과 마르투스, 산돌찬양단, 솔라피데, 시와찬미, 주사랑선교단 등의 찬양 동아리 등이 있다.

대학의 동아리 활동은 기쁘고 보람이 있어야 한다. 결코 되돌리고 싶은 상처와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당국은 건전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선량한 학생들이 자의적이든 타의

적이든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나 기독교대학인 성결대학교에서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이단들의 포교를 위한 일차적 접촉 대상은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혹 이들의 교내 활동이 확인된다면, 주무부처인 교육실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 드린다.

독자 한 스푼

가을 햇살에 젖어들며 시험에 지친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독자 한 스푼'은 학우들과 사진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학보사가 제시한 386호 주제 "당신이 찍은 음식은?"에 선정된 사진을 공개한다. 성결인들이 찍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은?



김유민(중문 17) 학우



윤지원(중문 20) 학우



서주애(행정 20) 학우



이지영(영문 17) 학우



조지현(중문 20) 학우



최은영(중문 20) 학우